

## 홍동면 유기농업의 전개 과정과 특성\*

김기흥\*\*

### The Process of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s for Organic Agriculture at Hongdong

Kim, Ki-Hueng

Organic agriculture at Hongdong began with the conscious efforts of farmers who were influenced by Japanese experience and the environmental degradation by conventional agriculture in the mid-1970s. Based on their strong conviction, even though the lack of organic technique and information, those farmers started to implement organic agriculture which was beyond the production increase policy at that time. The solidarity among farmers could establish the foundation of organic agriculture through undergoing trial and error. Substantively interchange and communication between farmers and consumers played a prominent role to strengthen the organic agriculture at Hongdong as well.

Key words : *Hongdong, organic agriculture, solidarity, rice-duck farming*

## I. 서론

충남 홍성군 홍동면의 유기농업은 1970년대 중반에 시작되어 1990년대에는 오리농법을 도입함으로써 많은 농가들의 참여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친환경농업의 전국적인 확산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홍동면의 유기농업이 국내 유기농업의 메카로 자리 잡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2000년대에는 이미 내외부적으로 활성화된 유기농업을 기반으로 하여 각종 마을사업 및 권역사업으로 대표되는 마을만들기 운동의 성공 사례로 거듭나 지금도 연간 2만여 명의 방문객이 찾고 있다. 현재도 특색 있는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요소를 가

\* 본 논문은 충남연구원 2014년 하반기 전략과제(전략연구 2014-41) ‘홍동 유기농업의 형성과 변천’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Corresponding author,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책임연구원(kihuengkim@gmail.com)

진 단체의 설립 등 유기농업 기반의 다양한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14년 9월, 홍동면을 포함하는 홍성군은 국내 최초로 유기농업특구로 지정되었다.<sup>1)</sup>

이러한 명성에도 불구하고 홍동면의 유기농업에 초점을 둔 연구는 많지 않은 몇몇 매체를 통해 산발적으로 알려진 정도이다. 지금까지 홍동면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폴무학교’라고 하는 교육적인 측면이나 ‘홍동마을’이라고 하는 마을 만들기적 측면, 그리고 ‘협동조합’ 등의 측면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다. 유기농업과 관련해서는 생산자단체인 폴무생협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Kim과 Cho (1995)는 폴무생협 유기농업 생산자회의 조직 운영에 관한 연구를 통해 유기농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Kim (2008a, 2008b)은 폴무생협 생산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통해 대안농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유기농업 생산자가 갖는 사회경제적 성격 및 대안체계 가능성에 대해 제시하였다. Hur (2009)는 한국 생협조직의 변천 과정 가운데 폴무생협의 사례 연구를 통해 대안 농식품 네트워크를 위한 생산과 소비 관계의 변화 과정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외에 농생대학적 농촌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측면에서 홍동 사례를 다룬 연구로 Kim, S. (2015)이 있고, Kim, K. (2015)는 홍동면 가운데서도 문당리 문산마을을 사례로 하여 케이퍼빌리티 어프로치(Capability approach)를 중심으로 한 홍동면 유기농업의 형성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전술한 연구들은 홍동면 유기농업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 특정 테마에 제한하거나 지역 유기농업의 단편만을 다루고 있어 홍동면 유기농업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진다. 지역 유기농업의 시작과 형성, 그리고 발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일은 유기농업을 실천함에 있어 드러나지 않는 문제발생과 극복방법, 그리고 그러한 과정의 순환을 통해 어떻게 지역의 핵심적 가치로 정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홍동면의 유기농업을 초창기 형성 부분과 성장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당시 유기농업을 실천했던 농가들에 중점을 두고 과연 어떤 이들이 유기농업을 시작하였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 실천할 수 있었으며, 이후 어떻게 발전되어 갔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및 대상으로는 초창기 유기농업의 형성 부분에서는 유기농업을 실천했던 농가 및 관계자를 일대일 심층 면담하였고, 성장 부분에서는 유기농업 재배를 중심으로 유기농업의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홍성 친환경 작목회 회원 농가 및 관련자 면담을 중심으로 하였다.<sup>2)</sup>

1) 지역특화발전특구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특화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지역을 특구로 설정해 선택적으로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로서 홍성군은 처음으로 ‘유기농업특구’로 지정되었다.

2) 본 연구에서 농민 개인에게 초점을 두는 연구방식을 채택한 것은 케이퍼빌리티 어프로치(capability approach)에서 말하는 개인적 삶의 모습을 통한 연구에 입각한 것이지만, 본 연구는 이러한 방법을

## Ⅱ. 홍동 유기농업의 시작(1970년대 중반~)

### 1. 유기농업의 실천

우리나라 유기농업의 시작은 1970년대 중반으로 다수확 장려시기에 다투입, 화학농법의 피해를 직접 경험한 생산자가 자발적으로 유기농업을 실천하면서 시작되었다(Jeong, 2006). 홍동에서 이러한 계기가 마련된 것은 1975년, 일본의 유기농업단체인 애농회 및 애농학교 이사장인 고다니 준이치씨의 홍동면 방문이다.<sup>3)</sup> 고다니씨는 한일 역사에 대한 사죄와 함께 과도한 농약과 화학비료의 사용으로 인한 일본 농업의 폐해를 알리면서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업 실천의 중요성을 설파하였다. 일본에서는 고도경제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각종 공해와 환경오염문제가 대두되었고, 안전한 먹거리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어 1970년대 초반부터 유기농업운동이 진행된다(Kim, K., 2015). 이러한 일본의 경험에 뜻을 같이 하는 농가들을 중심으로 1976년에는 국내 최초의 유기농업 단체인 정농회(正農會)가 설립되었다.<sup>4)</sup>

홍동면의 정서적 기반인 풀무학교(1958년 설립)는 홍동면의 농업 전반에 큰 역할을 해왔으나 풀무학교에서조차도 유기농업이 시작된 것은 1975년 고다니씨의 강연 이후였다.<sup>5)</sup> 당시 졸업생들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농업학교였지만 농업실습이 많지는 않았다(풀무학교 2기생)’, ‘실습장이 있기는 했지만 농업교육에 대한 것보다는 실천 쪽에 가까웠다(풀무학교 1기생)’고 증언하고 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는 환경에 대한 개념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깐, 그 당시에 국가는 새마을 운동은 이야기 했지만, 농촌자립 정도의 문제였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농업기술을 지역에 알려준다던가, 벌써 소독 같은걸 해 준다던가, 기존 농업에 대한 열

---

통해 홍동면 유기농업의 전개 과정을 역사적 관점에서 짚어보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 3) 당시 부친 소사와 홍동면을 방문한 고다니씨는 풀무학교의 주옥로씨 하에서 진행된 성서모임에서 풀무학교 후원 모임인 일심회의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유기농업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다.
- 4) 정농회는 ‘바른 농업을 하는 모임’이라는 뜻으로 ‘경천애인(敬天愛人)의 진리를 농업으로 구현하여 우리나라 전 농토가 화학적 오염으로부터 벗어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질서를 보전하는 생명농업으로 조속히 전환할 것을 바라고 유기농업을 실천함으로써 전 국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생활(사회)풍토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1976년에 창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농민단체’이다. 올해 40주년을 맞게 된 정농회는 전국적으로 600여명의 회원들이 있으며 7개의 지회 아래에서 활동하고 있다(정농회 홈페이지 참조). 현재 사무국은 홍성에 소재하고 있다.
- 5) 풀무학교는 1958년에 이찬갑씨와 주옥로씨에 의해 설립되었다. 학교 설립과 관련한 논의가 1958년 1월에 시작되어 풀무학원 발기인 총회를 3월에 열고 4월, 풀무공민고등학교로 개교하였다. 풀무고 등공민학교 인가는 같은 해 9월에 받게 되었다.

악한 것을 도와주는 정도였지, 어떤 그 농법에 있어서 새로운 것은 가지고 있지 않았죠(풀무학교 관계자 인터뷰).

풀무학교 내에서 유기농업에 대한 중요함을 인식하게 되면서 풀무학교와 일본 애농학교 간에 적극적인 교류로 이어졌고 풀무학교에서는 지역 내에서 유기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식량증산이 중시되던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관공서를 비롯하여 지역의 주변 농가들 사이에서도 학교 차원의 유기농업에 대한 실천이 이해되기 는 어려웠다.<sup>6)</sup>

한편 풀무학교의 유기농업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풀무학교 출신 졸업생을 중심으로 유기농업이 실천되어갔다. 당시 풀무학교 2학년생이었던 A씨(57세)는 고다니씨의 방문을 계기로 효소 기술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무농약 쌀을 재배하면서 벼 무게 및 수확량 조사 등 관행농업과의 비교를 통해 졸업 논문을 준비하는 등 유기농업 실천에 대한 노력을 기울였다.<sup>7)</sup> 이후 10년 이상을 어떠한 주변의 지지도 받지 못한 채 유기농업을 실천해냈다.

풀무학교 3회 졸업생 중 하나인 B씨(69세)는 “유기농업은 생명을 지키고 우주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것이라 믿고” 실천해왔다. 졸업 후 풀무학교 재직 중에 유기농업을 배우기 위해 농업기술자협회를 통해 일본의 애농회 부설 학교인 애농학교에서 1977년 1년간 연수의 기회를 얻게 된다.<sup>8)</sup> 당시 풀무학교와 교류해오던 협회의 일본 견학 프로그램에 합류하여 애농학교에서 유기농업을 포함하여 낙농과 화훼 등 다양한 농업을 배워왔다. 1978년에는 전국 애농회 회장의 후쿠오카 농장에서 1년간 농장 실습의 기회를 얻게 되어 다양한 유기농업기술을 배우기도 했다. 1979년 3월에 귀국하여 전국 단위의 농민대학 특강을 통해 유기농업을 알리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sup>9)</sup>

당시 풀무학교 출신이 아닌 지역 농민의 유기농업 실천도 이루어졌다. 흥동에서 유기농업을 시작한 또 다른 인물 중 하나인 C씨(68세)<sup>10)</sup>는 한국전쟁으로 부모를 잃고, 1967년에 고향을 떠나 지내다 1970년 귀향하게 되었다. 4-5년 사이 크게 훼손된 지력회복을 위해 토양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다. 땅을 살리기 위해 시작한 일은 퇴비 만들기로 풀과 농작물, 음식물 등 다양한 부산물을 이용했다. 1970년대 흥성에서는 축산으로 전환하는 농가들이 많

6) 농업과 농민 교육을 포함하는 풀무학교의 지역 내에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Lee (2008)가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7) 당시 중등부와 고등부에도 함께하던 졸업생이 있었으나, 지금은 돌아가셨다.

8) 1978년 당시에는 식량증산을 목표로 하던 시절이어서 출국 심사 과정에서 일본에 유기농업을 배우러 간다고 하면 그게 무엇이나고 되물어보던 일도 있었다고 한다.

9) 이를 계기로 농업기술자협회(1963년 창립) 내에 유기농업연구회가 발족되었다(Lee, 2008).

10) 5년 전 흥성 내포로 이사하여 충남도 교육청의 녹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았다. 이러한 축산 부산물을 퇴비로 사용하는 방법도 고려하였으나 높은 질소 함량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지력을 회복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되지는 않았다.

당시에는 유기농이라는 말보다는 무공해, 무농약이라는 말이 더 일반적이었던 것 같다. 현재는 많은 유기농가들이 돈벌이에 관심을 갖고 있으나 유기농업의 시작은 흙 걱정에서 시작된 땅심 살리기였다. 당시 상황을 돌아켜보면…… 농정의 방향은 다수확하는 농업에 힘을 기울이고 있었고…… 식량증산의 농업이 주가 되어 있었다. 이미 흙이 죽어 있었고 20~30년이 지나도 살릴 수 없을 것 같았다. 이렇게 해서 망가진 흙을 누가 살린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생각은 많았으나 어려운 일이었다(C씨 인터뷰).

당시 유기농 자재의 기본은 땅 살리기였다. 이를 위해 효소와 미생물 등이 많이 부각되었는데 일본에서 보급되고 있는 미생물을 이용한 농법도 농장실습을 통해 직접 만들어 사용해보기도 했지만, 토양을 살리는 반드시 유효한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유기농 자재에 대한 관심으로 당시 홍동 이외의 지역에서도 함께 유기농업에 대해 공부하던 사람이 몇 명 더 있었다(B씨 인터뷰).

유기농업이라는 용어 자체도 1970년대에는 생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는 이를 대신하여 ‘무공해, 무농약’ 농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풀무학교 2회 졸업생인 D씨에 의하면 ‘유축농업’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했다고 한다.<sup>11)</sup> 당시 값비싼 비료를 대신해서 면사무소에서조차도 비용 절감의 한 방법으로 거름이 되는 퇴비를 장려하기도 했다.

국내 화학비료와 제초제의 보급은 각각 1960년대와 1980년대 이전으로, 증산정책의 일환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제초제는 수확량 증가와 인건비 절감에 기여하였으나 위험성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언급이 없던 시절이었다. 결국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건강에 대한 피해를 경험하는 농가들이 등장하게 되었지만 그 원인이 농약에 있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밝혀내지는 못했다.<sup>12)</sup> 결국 식량증산을 위한 근대화된 농법의 확대는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고 생산자들의 건강도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었다.

당시 홍동 외에 괴산에서도 교육적 차원의 유기농업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졌는데 사

11) 1969년에 풀무학교를 졸업한 D씨는 군대를 제대하고 27살부터 유기농업을 시작하였으나 후에는 축산업에 종사하면서 유기농 우유로 만든 요쿠르트를 만들고 있다.

12) 일본에서도 1950년대, 60년대에 농약으로 인한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나 직접적인 원인으로 밝혀내기는 어려웠다. 농약과의 인과관계를 찾아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진 가운데 초창기 일본유기농업 운동에 큰 역할을 했던 야나세 기료 의사는 농약에 절여진 농산물을 자신이 직접 섭취하는 방식의 임상실험을 통해 병의 원인이 농약임을 세상에 알렸다. 이후 1971년 많은 지식인들과 농가의 참여로 일본유기농업연구회라는 단체가 조직되면서 유기농업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야나세씨는 고다니씨의 친구로 유기농업에 대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과 철학적인 면에서 유기농업 교육은 중요했지만 반드시 실천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소득이라는 현실적인 측면 때문에 실제로 ‘흙 살리기’의 중요성을 살린 유기농업의 실천에는 어려움이 따랐다.

## 2. 직거래의 시작과 소비자 교류

홍동면의 유기농산물은 판매 초창기에는 서울시의 아파트 단지에서 직거래 형태로 거래되었다. 경실련 정농 생협 대표가 소비자단체를 통합하면서 함께 진행되었던 일이었다. 또한 성남시의 아파트 단지도 직접 방문하여 미곡(20가마니 약 1.6톤)을 판매하기도 하였다. 자체적인 홍보를 통해 초기 3~4년간 판매를 지속하였고, 90년대 들어서면서 회원제 중심으로 서울에 있는 정농회와 풀무원의 회원들에게 직거래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C씨 인터뷰). 하지만 유기농업이라는 것이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충분히 이해되지 못하던 시절이라 시중 가격과 큰 차이가 없는 등 제대로 된 소비형태가 자리 잡히지는 못했다. 소비자 중에는 쌀을 싫어지고 가면 배달원쯤으로 여기고 쌀독에 직접 부어달라는 소비자도 있었다고 한다(E씨 인터뷰). 다시 말해 직거래의 진정한 의미는 어렵게 농사지은 농가의 상황을 이해하는 가운데 그에 맞는 적정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소비자와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관계가 쉽게 성립되지는 못한 상황이었다. 또한 주로 생산자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농회와의 관계 속에서 소비자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1989년 한국여성민우회생협의 발족으로 풀무생협 생산자 그룹에게 유기농산물의 공급을 부탁하게 되면서 소비자와의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모체가 되는 한국여성민우회는 1987년에 창립된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진보적인 여성단체였다. 이후 여성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 가운데 먹거리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먹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여성민우회생협이 만들어지게 되었다(생협 초창기 멤버 인터뷰).<sup>13)</sup> 이후 한살림과도 교류하게 된다.<sup>14)</sup> 당시 한살림은 유기농업 실천 그룹과의 교류 활동에 역점을 두게 되는데 그 가운데 홍동면의 생산자 그룹을 방문하는 등 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한살림 초창기 멤버 인터뷰).

홍동면의 생산자들은 여성민우회 회원 등 소비자 그룹과의 주기적인 만남을 통해 유기

13) 한국여성민우회 홈페이지에서는 ‘함께 가는 생활소비자협동조합’의 결성으로 표기되어 있고, 구 여성민우회 홈페이지에서는 12월 16일 창립총회(조합원 220세대, 출자금 1,300만원)라고 표기되어 있다. 현재 ‘행복중심생협연합회’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활동하고 있으며 홍성군에 두 개의 점포가 소재해있다. 이로써 생산자 중심의 생협에서 소비자 회원의 생협으로 성격이 바뀌게 된다.

14) 한살림은 국내 최초의 생산자소비자단체로 1986년을 시작으로 1년 반의 준비모임을 거쳐 1988년 한살림소비자협동조합으로 결성되었다.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이와는 별도로 장일순 선생님의 아이디어에서 힌트를 얻어 1986년 박재일씨가 한살림농산을 만들어 농산물을 판매하기도 했다.

농업에 대해 교육하고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Jeong (2006)의 지적과 같이 당시 유기농산물 직거래는 1980년대 말까지 생산자가 주체적으로 수행하다가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유기농산물 직거래 주체로 생협이 등장하게 된다.

홍동면에서 직접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교류 행사는 1992년에 처음 마련되었다.<sup>15)</sup> ‘가을걷이’라는 이름하에 홍동면 저수지 뚝방에서 화신리 회원 농가의 땅을 빌려 메뚜기 잡기 행사를 진행하였다. 정농회 회원 생산자와 풀무소비자협동조합, 풀무생협 생산자들이 공동으로 주최하여 서울의 민우회 회원 소비자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 약 400명이 참여하는 소통의 장이 되었다. 이것은 이후 오리농법이 도입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도농교류의 시작이었다.

### 3. 유기농업의 확대와 협동조합 및 농가조직

홍동면의 풀무학교에서는 오산학교의 경험과 덴마크의 그룬트비히 정신을 이어 이룬 시기에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Sugegawa, 2008). 1960년에는 학교 안에서 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였고 1969년이 되면서 교내 풀무소비조합이 발족된다. 이후 1980년 5월에는 풀무학교 출신 생산자가 홍동면 생산자와 함께 면내에 점포 임차를 통해 풀무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개설하면서 라면 등 생활용품 판매를 개시하였다. 그러나 경영적자로 1983년에 해체하였다가 이후 재창립을 거듭하게 된다. 1985년 1월에 생협중앙회의 회원조직으로 가입하면서 3월에 정관을 개정하였으며, 1992년에는 소비자였던 회원 가운데 생산자가 늘어나면서 35명의 유기농업 농가를 정회원으로 하는 풀무생협 유기농업 생산자회가 생겨났다.

한편 정농회 활동의 전국적인 확대는 1991년 홍동을 중심으로 한 정농회 홍성지회 창립으로 이어졌다. 3월 창립총회는 풀무학원 지역교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창립 목적은 ‘정농강령에 입각하여 홍성지역에 정농을 보급 정착 발전시키는 것’이며, 유기농업에 대한 연구와 생산자 및 소비자와의 교류, 국제적 차원의 농민 교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를 위한 준비가 일찍부터 마련되었다.<sup>16)</sup> 1992년 1월 천북면 두레농장에서 열린 제2차 정기총회에서는 ‘정농정신교육’이라고 하는 간행물과 번역도서의 출간, 회원작목별·주제별 연구 발표를 하는 정농연구 등의 사업계획이 제안되었다(정농회 내부 자료). 특히 ‘지역농산물의 지역판매망 개척’이라는 활동도 제시되어 있어 현재의 로컬푸드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지역

15) 이러한 나눔 행사는 청양군 화성면의 유기농업 단체가 실시한 ‘거저’(공짜, 무료)축제에 참여한 홍동 농민의 제안으로 성사되었으며 당일 메뚜기를 많이 잡은 사람에게는 염소를 부상으로 주었다(농가 인터뷰).

16) 이러한 정농회의 활동을 Huh (2009)는 유기농업에서 정통성을 지켜온 생명농업운동, 특히 신사회운동의 일환인 문화정체성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을 중심으로 하는 판로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당시 정농회 홍성지회에는 30여명의 회원이 있었는데 두 생산자가 주도가 되어 홍성읍 내 아파트 주민에게 실제로 꾸러미 배달을 하기도 했다(농가 인터뷰).

당시 YMCA 하의 농민회는 한국농업의 역사 등 농민의 의식 개혁에 관한 활발한 교육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홍동면에서도 많은 농민들이 참가했다.<sup>17)</sup> 홍성 YMCA는 대전 충남 지역에서 최초로 설립되었고, 그러한 영향으로 1987년에는 홍성농민회가 생겨났다. 홍성의 경우 유기농업 실천자들이 주를 이루었다. 홍성군 이외에도 청양과 아산에서도 가톨릭 농민회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와 같이 홍성지역의 유기농업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들이 홍동면 생산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홍동 내에는 풀무신헌 안에 풀무학교 출신자들이 중심이 된 ‘보름달 모임’이 결성되어 지역의 농사 이야기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유기농업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졌다(B씨, E씨 인터뷰). 또 1997년에는 지역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함께 논의하자는 취지로 ‘지역개발연구회’를 만들어 농민들과 같이 일본에 다녀오기도 했다. 당시 홍동에서는 유기농업과 관련한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되었으며 생협 활동 등 중첩되어 일어나기도 했다. 그러한 전체적인 논의의 장은 자발적인 주체들의 역량 가운데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sup>18)</sup>

### Ⅲ. 홍동면 유기농업의 성장(1990년대 중반~)

#### 1. 오리농법의 도입

홍동면을 중심으로 유기농업이 시작은 되었으나 유기농법에 관한 안정적인 기술이 자리 잡혀있던 것도 아니어서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지역의 농가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이러한 홍동의 유기농업은 오리농법이 도입되면서 전기를 맞게 된다.<sup>19)</sup> 때마침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로 인해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한 대안으로서 친환경적이면서 경쟁력 있는 오리농법을 통한 유기농업을 지역 농가들에게 설득하게 된다. 그 결과, 유기농업 실천 농가는 2명에서 다음 해 19명으로 늘어났다.

당시 홍동면에서 오리농업을 시작하기 위해 고안한 것은 도시민과 함께 하는 방법이었

17) 서울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이루어진 농민교육은 정신적이고도 철학적인 면을 위주로 이루어졌다.

18) 현재의 홍동면의 마을활력소와 같이 마을 전체를 아우르고자 하는 조직 결성의 노력은 초창기 유기농업의 확산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19) 오리농법은 당시 풀무학교 교사였던 홍순명 선생님이 일본의 농업 전문 잡지인 ‘현대농업’에 소개된 것을 보고 번역하면서 지역 내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일본의 오리농법 창시자인 후루노 다카오씨의 한국 방문을 인연으로 한일간 농민교류가 현재에까지 지속되고 있다.

다. 1995년 ‘도농일심(都農一心) 함께 짓는 농사’의 정신을 바탕으로 도시민들과 함께 하는 오리농법의 실천을 위해 중앙일보에 오리 값 보내주기 운동을 위한 기사를 올리게 된다. 기사에는 유기농업이라는 말 대신에 ‘무공해농사’라는 용어로 소개되었으며, 참여하는 도시민에게는 농사짓고 난 후 오리와 오리쌀로 보답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러한 운동은 큰 반향을 일으켜 전국의 250여 가족 500여명의 도시민들이 후원금을 보내주었다. 도시민들로부터 며칠 동안에 600여 통의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다(홍성환경농업교육관 사무장 인터뷰). 당시 모금한 1,950만원의 자금으로 오리 1만여 마리와 오리망 등 자재를 공동으로 구입하여 오리농법을 통한 유기농 쌀 재배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성공적인 오리 보내주기 운동 후에는 도시민과 함께 오리를 논에 방사하는 이벤트가 이루어졌으며 이후 약속대로 도시민에 대한 감사의 보답으로 생산자들의 오리고기 보내주기 행사가 진행되었다. 같은 해 9월에는 지원해준 도시민을 초청하여 지역민과 함께 하는 교류회를 마련하였다. 지역 농민들은 어렵게 농사지은 농축산물을 선뜻 내주어 나눔을 선사하였고, 도시민들은 농촌에 직접 내려와 농업이 가지는 교육적인 가치를 공유할 수 있었다.<sup>20)</sup> 이러한 소통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는 서로가 이해하고 연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도시민과의 교류가 가능했던 것은 이미 1990년대 초반에 ‘가을걷이’라는 행사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형태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오리를 통한 소비자와의 적극적인 교류의 틀은 홍동면 생산자들의 주도적인 노력 아래 마련되었다.

## 2. 흑향미와 홍동농협

오리농법으로 확산된 유기농업 실천은 1996년 중국에서 들여온 검정 흑향미의 도입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가능하게 하여 더 많은 생산자가 참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처음에는 두 농가만 시범적으로 재배하였으나 향과 맛이 좋은 데다 기능적인 측면까지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주위 농가들로 확산되어 갔다. 이를 계기로 홍동농협과 최초로 계약재배까지 성사되면서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보할 수 있었다. 홍동농협은 1977년에 설립되어 주로 표고버섯과 잡곡을 다루어왔고 쌀은 공공비축미만 취급하고 있었다. 당시 농협은 합병의 움직임으로 사업적인 위기를 겪던 시기로, 홍동면의 흑향미를 매취하게 되면서 사업규모를 확대해가며 안정화를 찾게 된다. 당시 흑벼(쌀이 아닌 벼의 상태로 취급)는 30kg에 10만원이었는데, 현재 거래되고 있는 유기농 쌀의 수취 가격과 비교해도 높은 가격이다. 이렇듯 유기농 흑향미에 대한 폭발적인 반응은 자연스럽게 유기농 일반미 취급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초기에는 건조벼로 취급했는데 이후 물벼 상태의 계약재배가 가능하게 되었다. 당시 홍

20) 그 후 많은 시민으로부터 감사의 편지가 오기도 했는데 홍성농업교육관의 귀한 자료로 남아있다.

동면 문당리에는 2003년에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비로 설립된 친환경 벼 전문 도정공장이 운영되고 있었다. 문당리 도정공장은 2002년부터 운영과 부지에 관련한 논의를 시작하여 2003년에 설립, 도정을 통한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sup>21)</sup> 도정공장은 4~5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어 왔으며, 도정사업은 홍성환경농업교육관 유지를 위한 주요 수입원이 되었다. 2008년이 되면서 지역 내 유기농 쌀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취급량도 늘어나 홍동농협으로 이관되었고, 쌀 도정에서 소포장까지 가능한 친환경 전용 RPC로 변모하게 된다.

농협과의 안정적인 계약으로 흑미를 생산하고자 하는 농가가 늘어나게 되면서 수량 조절을 위한 내부적인 규약이 마련된다. 문당리에서는 검정쌀 농사를 짓는 순서를 정하는 ‘검정쌀 규약’을 통해 농토가 적거나 지역 외부인 사람에게 우선권을 주고, 그리고 난 후에 지역 내 농가에게 기회를 주게 되었다(농가 인터뷰). 그리고 흑미 30kg 조곡 쌀 한 가마니 당 1만원의 적립금을 통해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한 환경기금을 조성하게 된다.<sup>22)</sup> 이 기금은 1998년에 홍동면 문당리 환경농업교육관 부지의 매입 및 자금원으로 사용되어 유기농업을 바탕으로 한 본격적인 마을 만들기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Table 1. Contracting agency for organic rice in 2000

(unit : kg)

Agency	Non-Glutinous rice	Black rice	Glutinous rice
P. Consumer's Coop.	120,000		20,000
co. P	80,000	30,000	20,000
co. D	40,000	60,000	
co. C	40,000	30,000	
co. G	40,000		
co. M	60,000		
co. S	40,000		
Total	420,000	120,000	40,000

Source: Hongseong Organic Training Center

Table 1은 2000년 당시의 계약처 현황이다. 쌀이 아닌 산물벼의 상태로 계약하였으며 지역 생협과 회사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 기업과도 계약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벼는 총 420톤, 흑벼는 120톤, 찰벼는 40톤으로 총 580톤을 계약 판매하였다. 대금은 홍동농협에

21) 풀무생협도 2008년 2월 전용 도정시설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문당리의 도정공장을 사용해왔다.

22) 공동 마을 기금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21세기 문당리 발전 백년 계획’(2000)에도 제안하고 있는데 이보다 이른 시기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납부하고 공급개시일은 2000년 10월 이후로 하고 있다. 이는 농민들에게는 수확 이전의 단계에서 안정적으로 계약 재배를 통한 공급처를 확보하게 하여 판로에 대한 걱정 없이 유기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Table 2는 오리농 쌀 재배 농가를 위한 오리입식지원자금 증서로, 많은 생협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생협(당시)을 시작으로 11개 생협과 일반 개인이 지원하고 있다. 총 869만원에 달하는 금액이 오리와 오리망 구입으로 사용되어 오리농사를 짓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주었다.

Table 2. Certificate of funds to support for farmers of rice-duck farming

Supporters	Support fund (won)
Happy Coop.	2,520,000
Buchoen Consumer's Coop.	540,000
Seongnam Community Consumer's Coop.	936,000
Ansan Consumer's Coop.	396,000
Cheonan Consumer's Coop.	414,000
Purun Consumer's Coop.	792,000
Incheon Consumer's Coop.	280,000
Seokwangsa Consumer's Coop.	60,000
Barun Consumer's Coop.	360,000
Tang-Moim Consumer's Coop.	432,000
Hannuri Consumer's Coop.	1,800,000
Individual consumers	162,000
Total	8,692,000

Source: Hongseong Organic Training Center

### 3. 홍동면 유기농업의 확산

2000년으로 들어서면서 유기농 쌀 생산을 중심으로 하는 홍동면 유기농업은 급속히 확산된다. 마을 단위의 작목반으로 구성되는 홍성 친환경 작목회 회원은 2000년에 372농가, 2002년에는 약 100농가가 더 늘어 472농가가 되었다(Table 3). 당시 홍동면에서는 문당리, 금평리, 홍원리, 효학리, 운월리, 원천리, 화신리, 구정리, 팔괘리, 월현리, 대영리, 신기리, 금당리, 수란리로 법정리 14개리 전체에서 유기농업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총 23개 마을에서 실시되었다. 홍동면의 농가수는 361가구로 그 가운데 홍동농협에 납품하는 작목반의 농가수가 257가구, 풀무생협(당시)에 납품하는 경우는 104가구였다. 이 외에도 금마면 24농

가, 장곡면 37농가, 청양군 화성면 18농가, 보령시 청라면 32농가가 참여하는 등 유기농업이 홍동면을 넘어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확대 경향은 홍성 친환경 작목회 회원 전체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적지 않은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역이 아닌 청양군과 보령시 농가들에 대한 실질적인 모니터링 작업은 쉽지 않았다. 이에 2005년이 되면서 장곡면을 비롯하여 청양군과 보령시의 농가들은 각각 독립하게 되었다. 또 유기농 쌀에 대한 프리미엄의 발생과 부가가치의 상승이라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진입하게 된 농가들의 참여가 늘어나 인증화작업을 통한 회원 농가들의 자체 정화 과정도 거치게 된다.<sup>23)</sup> 그 결과, 생협에 납품하는 작목반은 작목회에서 분리되면서 농협만의 회원으로 정비하게 되었다.

2005년 농가수는 2002년과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비슷하거나 증가 추세를 보였다. 대영리와 신기리의 경우 급격히 늘어났고 운월리 송풍 작목반은 새롭게 생겨났다. 신기리 만경과 수란리 산양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신기리 신촌 작목반으로 합쳐지게 된다. 구정리 고요는 고령화로 3년 사이 실천 농가가 사라졌다. 2005년에는 홍동면에서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농협 회원수로는 최대치를 기록하여 총 315농가, 약 331만 m<sup>2</sup>에서 오리농법이 이루어졌다. 2005년까지는 작목반장의 지도 하에 흙살림에서 인증을 받다가 2007년부터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인증기관을 바꾸게 된다. 2010년부터는 자체 인증 시스템을 추가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자체적으로 연 1회 이상 50가지 품목에 있어서 농약 등 잔류검사를 실시하였고, 영농일지의 작성과 교육의 실시, 또 4미터의 유격구간을 둠으로써 유기농업 관리를 강화하였다.

2015년 현재 홍성 친환경 작목회는 총 13개 작목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11농가에 의해 약 222만 m<sup>2</sup>에서 오리농법이 실천되고 있다. 2005년과 2015년을 비교하면 문당리 문산과 동곡은 다시 작목반을 구분하게 되었고, 홍원리 하원과 팔괘리 석산은 그 수가 고령화로 인해 줄어들게 되어 운월리 송풍으로 편입하게 된다.<sup>24)</sup> 또 운월리 운곡과 상반월, 대영리와 신기리에서도 고령화로 인해 농가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이로써 10년 사이 약 100농가가 감소하였다.

23) 효חק리 효동에서는 농약이 검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여 인증이 취소되었고, 필지가 잘못되어 적발되는 농가들도 발생했다. 이를 위해 자체적으로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제도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24) Kim, K. (2015)에 의하면 홍동면 문당리 문산마을 조사 결과, 초창기 유기농업을 실천했던 농민(1999년 자료, 18명)의 2015년 1월 현재 평균 나이는 71세인 것으로 나타나 상당히 고령화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Table 3. Details of Hongseong Organic Farmers Group

	Village	In the 2002		In the 2005		In the 2015	
		No.	Property (m <sup>2</sup> )	No.	Property (m <sup>2</sup> )	No.	Property (m <sup>2</sup> )
1	Mundang, Musan	40	447,391	54	680,704	39	458,731
2	Mundang, Donggok	10	119,643			11	121,783
3	Geumpyung, Sanhajung	24	293,609	27	299,975	25	291,920
4	Hongwon, Mojeon	29	292,309	30	380,503	27	413,763
5	Hongwon, Sangwon	23	133,880	31	231,433	26	183,880
6	Hongwon, Hawon	11	55,935	13	91,768		
7	Hyohag, Hyodong	18	141,623	17	185,108		
8	Hyohag, Hagge	11	67,252	13	138,820	8	51,868
9	Unwol, Changjeong	13	110,932	12	121,672	11	116,770
10	Unwol, Ungog	26	185,995	27	291,472	17	156,401
11	Unwol, Sangbanwol	13	139,190	20	281,728	11	124,850
12	Unwol, Songpung			5	52,418	8	61,610
13	Palgue, Seogsan	7	32,068	15	124,825		
14	Daeyoung	8	25,833	24	195,043	12	91,704
15	Shingi, Shinchon	9	68,404	27	237,112	11	105,410
16	Shingi, Mankyung	5	47,893				
17	Geumdang, Seongdang					5	38,161
18	Suran, Sanyang	2	24,885				
19	Gujeong, Goyo	8	79,115				
20	Geumpyung, Gime (Co.)	18	159,074				
21	Wolhyun, Gewol (Co.)	24	168,921				
22	Hwashin 1 (Co.)	22	278,155				
23	Hwashin 2 (Co.)						
24	Gujeong, Dongmag (Co.)	19	90,376				
25	Palgue, Songjeong (Co.)	11	72,157				
26	Woncheon, Jungwon (Co.)	10	44,302				
27	Geumma town, Jangseong	24	217,472				
28	Janggog town, Gasong	10	70,051				

	Village	In the 2002		In the 2005		In the 2015	
		No.	Property (m <sup>2</sup> )	No.	Property (m <sup>2</sup> )	No.	Property (m <sup>2</sup> )
29	Janggog town, Dehyun	19	86,303				
30	Janggog town, Dosan	8	64,569				
31	Cheongyang county, Hwaseong town	18	116,116				
32	Boryoung city, Cheongra town	32	264,800				
	total	472	3,898,253	315	3,312,581	211	2,216,851

Source: Hongseong Organic Training Center and Hongdong agricultural cooperative.

Note: The farmers group of village (Co.) supplied their organic rice to consumers' cooperative.

#### 4. 흥동면 유기농업의 정체

한편 2000~2005년에 걸쳐 흥동면의 오리농법은 5년간 약 5만 수의 오리를 방사할 정도로 성장했고 이러한 성장세는 2008년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오리 방사량 증가와는 대조적으로 2005년이 되면서 흑미의 판매실적은 그전까지의 증가세가 지속되지 않았고 2006년에는 적자가 발생했다.<sup>25)</sup> 또 전국적으로는 유기농 쌀 생산이 확산되어 갔으나 2005년부터는 쌀 소비량 자체에 대한 감소 경향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농협에서는 농가 매취 수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2007년부터 2009년에 걸쳐 40kg 한 포대 9개까지만 수매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2007년 당시 농협과의 계약 농가는 고령화 문제와 겹쳐 270농가에서 225농가까지 줄어들게 되었다. 현재는 호황이던 흑향미는 일부만이 남은 상태이고 유기농 일반벼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흥동면 유기농업의 상징이었던 오리농법은 2008년에 발생한 조류독감의 영향으로 인해 그 해 완전히 멈추게 되었다. 그 후 쌀값 하락의 리스크로 인해 대다수 농가들이 오리농법을 포기하게 된다. 이후 오리 사육과 관리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오리농법을 그만두는 농가가 증가하였다. 결국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 오리농법 실천농가의 85%의 농가가 우렁이 농법으로 전환하게 된다.<sup>26)</sup> 오리농법은 단순히 농법만이 아니라 생산자와의 교감은 물론 소비자를 위한 교육적 차원 등 다방면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이러한 결과는 비단 유기농업뿐 아니라 지역 자원의 차원에서 큰 손실이라 할 수 있다.

25) 흑향미 수요는 일반미의 10% 정도이기 때문에 이미 판매되고 있는 양만으로도 포화상태였다.

26) 우렁이는 당진 소재 업체에서 조달했는데 2013년 홍성군 금마면으로의 이주로 더욱 밀접히 연계하게 되면서 농협이 직접 우렁이 공급을 담당하게 되었다(흥동농협 인터뷰). kg당 4,800원으로 900평에 20kg의 우렁이가 방사되고 있다.

오리는 매년 6, 7월이면 농가가 아니더라도 가족 단위의 도시민들이 구경 올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 오리와의 교감을 통한 교육적인 접근이 줄어드는 현실에 아쉬움이 남는다(농가 인터뷰).

현재 오리농법은 홍동면에서는 상징적인 활동으로 남게 되었다. 하지만 2013년부터 농협 작목회 회원들에게는 세 구간 중 한 구간(900평)은 오리농법을 의무화하는 원칙을 세우는 등 오리농법을 지켜 나가기 위한 대책 마련 중이다.<sup>27)</sup>

이렇게 생산된 유기농 쌀은 홍동농협이 전량 수매하여 70~80%는 초록마을에, 무농약 쌀은 학교급식으로, 나머지 일부는 농협유통에서 판매하고 있다. 품목으로는 일반 유기농 쌀은 추청이 가장 많고 삼광은 무농약 재배, 밀크퀸은 특수미로서 유기농으로 재배되고 있다. 그 외에 찰벼와 흑벼가 있다. 홍동농협에서는 2009년부터 회원들이 생산한 유기농 쌀을 다시 전량 수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홍동농협과 작목회와의 계약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파종하기 직전인 3월까지 작목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1년간의 계약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수확의 시기까지는 생산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종자의 공급과 유박, 오리, 우렁이 등 친환경 자재의 공급을 농협이 담당하게 된다. 1년에 한번 있는 인증 업무도 농협에 의해 이 시기에 이루어진다. 이때 작목반장은 재배면적당 품종을 할당하는 등 수량을 농가들과 협의하게 된다. 9월 수확기에 접어들면 수매가 이루어지는데, 처음에 계약한 양보다 많더라도 전부 수매해 왔다. 2008년까지는 홍성 친환경 작목회가 중심이 되어 자생적인 활동들이 활발히 일어났으나 그 이후 인증 업무를 포함하여 작목회의 활동은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다루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서 가격결정 과정도 농협 이사회를 거쳐 이루어지게 되어 실질적으로 작목회의 활동은 크게 축소되었다.

2016년 현재는 오리 3,224마리, 우렁이 16,210kg을 사용하였고 전년도인 2015년에는 오리 3,185마리와 우렁이 14,440kg가, 2014년의 경우는 오리가 4,030마리, 우렁이는 14,210kg가 사용되었다(홍동농협 인터뷰). 오리는 매년 줄어들다 올해 조금 늘었고 이를 대신해 우렁이의 사용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 V. 요약 및 결론

홍동면의 유기농업은 1975년 일본 유기농업의 경험을 전해들은 농민들과 관행 농업이 가지는 폐해를 직접적으로 체득한 소수의 농민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당시 농업은 식량증

27) 오리는 농협이 분양하는 형태로 농가에게 공급된다.

산이라는 기조 아래 다수확을 위한 농약과 제초제 및 화학비료의 과다한 사용으로 자연 생태계의 파괴는 물론 토양 산성화 등의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이는 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농사의 속성상 농가들에게 ‘땅심의 소실’이라는 직접적인 피해를 가져다주었다. 더불어 농약 등 제초제의 사용으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는 농가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 이러한 건강에 대한 우려는 유기농업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홍동면 생산자들은 강한 신념 가운데 자발적인 노력으로 유기농업 실천에 진입하였으나, 당시 유기농업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분위기와 유기농업에 대한 정보 부족과 기술 미비 등으로 인해 지역 내 농가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이를 극복하고 현재에 이르게 된 홍동면 유기농업의 전개 과정에서 나타난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특성은 지역환경 보전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농가들의 굳은 신념이다. 농가 면담 가운데 ‘유기농업은 생명을 지키고 자연의 섭리를 따르는 것이라 믿고 실천해왔다’고 하는 의지나 ‘유기농업의 기본은 흙과 토양 만들기’라고 하는 땅 살리기에 대한 믿음, 더불어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한 자부심과 긍지는 홍동면 유기농업 실천 농가에게서 드러나는 공통적인 가치이자 대표적인 키워드이다. 초창기 유기농업 실천 농가들이 경제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유기농업을 도입했다면 많은 어려움을 딛고 지속적으로 유기농업을 실천해낼 수는 없었을 것이다.

두 번째 특성은 이러한 노력이 공통된 신념을 가진 농가 간에 공유되어 단합과 연대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초창기 홍동면 유기농업의 성공은 철학적 신념이 기반이 되어 농법을 포함하여 다양한 시도로 이어졌으며, 시행착오 가운데서도 이러한 경험이 농가 간에 공유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농가들의 부단한 노력은 이후 협동조합적 요소를 가진 다양한 농가조직의 형태로 발전된 후에야 지속적인 유기농업의 토대로 작용할 수 있었다. 홍동면 내에 존재한 정농회와 농민회, 풀무생산자그룹과 홍성 친환경 작목회 등 다양한 조직 결성의 노력들은 해체와 결합, 공유와 연대의 과정을 거쳐 가며 홍동면에서 유기농업을 정착시키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냈다. 이는 홍동면의 정신적인 기반인 풀무학교 내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성격의 협동조합의 설립이라는 실험적인 도전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 다시 다음 세대의 학습 기반이 되기도 하였다.<sup>28)</sup>

마지막으로 홍동면의 유기농업 전개 과정에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나아가 생산자와 시민과의 적극적인 연대가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었다. 1980년대 후반에는 홍동면 생산자가 서울의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방식을 주도하였고, 1992년에는 홍동의 ‘가을걷이’ 행사에 소비자를 초대하는 형식으로 소통의 장을 만들어냈다. 1994년에는 도시민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오리농법의 생산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이는 1980년대부터 시작된 생산자-소비자 간의 유대와 소통, 그리고 그 저변에 깔린 ‘신뢰’가 환경과 지역, 안전을 생

28) 현재에도 이러한 다양한 협동조합적 요소를 지향하는 단체의 설립은 홍동면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의료조합과 지역은행과 같은 개념의 경제협동체인 도토리회가 창립했다.

각하는 유기농업의 철학을 공유하는 차원을 넘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한편 이러한 홍동면의 유기농업은 현재 농가들의 고령화와 홍동면 유기농업을 대표했던 오리농법의 축소, 그로 인한 생산자 소비자 간 교류 기회의 단절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초창기 유기농업의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협동조합을 포함한 농가조직마저도 이제는 생산자에 대한 배려보다는 소비자 위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의 틀 아래 주체적 역량을 발휘할 본래의 역할을 잃어가고 있는 듯하다.

더욱이 올해 홍성 친환경 작목회의 쌀 계약 가격은 몇 년간 상승 혹은 유지되던 것에서 조곡 80kg에 3천원이 떨어졌다. 쌀 소비 자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감소 경향에 따른 위기에서 홍동면도 예외는 아니다. 이와 더불어 저농약농산물 인증 폐지와 함께 친환경인증에 관한 관리 감독의 강화 등으로 친환경농가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 국내 친환경농업 자체의 위기와도 맞물려 있는 상황이다. 전술한 내부적 요인과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여 홍동면 유기농업 실천 농가의 전에 없던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해서 홍동면에서 가능한 대안은 무엇일까. 우선 농가들의 고령화 현상은 전국적으로도 농촌 공동체 유지와 관련하여 큰 위기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존 농가의 고령화와는 별개로 홍동면은 수많은 젊은 귀농귀촌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초창기 홍동면 유기농업 실천 농가들에게서 나타난 지역환경 보전과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고자 했던 강한 신념을 이러한 젊은 인력에게 어떻게 전승할 수 있을 것인지 지역 내외적으로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들에게 적절한 역할을 부여한다면 홍동면 유기농업의 후계자 문제와 귀농 정책이 연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오리농법으로 대표되던 홍동면 유기농업을 앞으로 소비자에게 어떻게 전해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이는 오리농법에 대한 부활의 가능성과 함께 이를 대신하여 홍동면 유기농업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새로운 방법에 대한 고민을 포함하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나아가 줄어들고 있는 생산자 소비자 간 교류 문제는 경쟁력 차원에서도 ‘홍동만의’ 팬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리고 그 주체는 다시 젊은 인력들이 수혈된 농민 중심의 조직이 되어야 할 것이다. 홍동 유기농업의 전개 과정에서 나타난 초창기의 역사를 되짚어보며 풀어가야 할 숙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할 때이다. 이것이 바로 본 연구에서 홍동면의 개인 농민들에 중점을 두고 홍동면 유기농업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 이유이다. 홍동면 유기농업의 초기 참가자의 역사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록으로서 큰 가치를 지닌다. 더 고령화되어 그들의 역사가 사라지기 전에 아카이브화 하는 작업 역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로는 홍동면 유기농업이 유기농 쌀 재배가 중심이 되어 큰 흐름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기존의 조직에서 독립하여 다양화하고 변모해갔던, 더불어 여러 시도들을 해냈던 모든 농가들과 조직의 이야기를 다 담지는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또한 추후 연구과제로 남아있다.

[Submitted, August. 19, 2016 ; Revised, October. 24, 2016 ; Accepted, October. 30, 2016]

## References

1. Huh, M. Y. 2009. The Effects of Right Farming Association on Bio-Agricultural Movement in Korea. *Damron* 201. 12(1): 27-58
2. Hur, N. H. 2009. A Study on the Change of Production-Consumption Relationship in the Producer Co-Ops: The Case Study of Pulmoo Co-Ops. *Journal of Rural Society*. 19(1): 161-211
3. Jeong, E. M. 2006. The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s of th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olicy in Korea. *Korean J. of Org. Agric.* 14(2): 117-137
4. Kim, H. and Cho, W. H. 1995. An Analysis on Production Characteristics and Management Income of Organic Farming in Hong-Dong Myun, Hong-Seong Region, Chung Nam Province. *Korean J. of Org. Agric.* 4(1): 45-58
5. Kim, H. J. 2008a. The Feature of eco-agricultural producers, producers' organization and the potentialities of alternative agro-food system: A Case of the Pulmu Life Cooperative.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24(1): 185-212
6. Kim, H. J. 2008b. A Study on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Poolmu Life Cooperative Producers. *Journal of Rural Society*. 18(1): 43-89
7. Kim, J. S. 2013. Cooperatives and the autonomy of rural community. *Journal of Rural Society*. 23(2): 161-211
8. Kim, K. H. 2015. Formation and Progress of Hongdong Organic Agriculture Community with Focus on the Capability Approach: A Case Study of Mundang Village. *Journal of Rural Society*. 25(2): 57-89
9. Kim, S. Y. Agro-ecological Rural Development and Nested Markets: A Case Study of Hongdong Town, South Korea. *Journal of Rural Society*. 25(2): 7-55
10. Lee, K. R. 2008. Poolmoo school in Hongseong agricultural history: Lee et al., Poolmoo Education 50 Missing A New Day Again. Committee for commemorative projects for Poolmoo 50 years. pp. 136-148
11. Sugegawa, N. 2008. The Non-church movement, Poolmoo school and Dokuritsugakuen: Lee et al., Poolmoo Education 50 Missing A New Day Again. Committee for commemorative projects for Poolmoo 50 years. pp. 33-47